사진기자의 땀 짓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신안의 고요한 섬 자은도에 한낮의 느긋함을 깨는 경운기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한낮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운기 한 대가 논길로 향합니다. 여름 더위에 극성인 벌레들을 쫓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경운기에는 농약 작업을 위한 물건들이 한가득 실려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논 일에 중학생 손녀딸도 동참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모처럼 게으름을 부리던 손녀는 긴 팔 옷으로 중무장 한 채 경운기에 올랐습니다.

여름 햇볕 아래 고된 논 일을 나서는 게 좋지만은 않을 터인데 할머니와 나란히 경운기에 오른 손녀딸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 입니다. 뾰로통한 표정일 거라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할아버지 기사가 모는 경운기를 타고 할머니와 다정한 말벗이 되어 논으로 향하는 소녀의 모습은 자은도의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신나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일 하나에도 입이 퉁퉁 붓는 우리 아이들이 눈부신 여름의 햇살 속에서 한층 더 성장했기를 바래봅니다. 자은도에서 만난 아이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나명주기자 mjna@

I love MY student

전 계 자

〈팔마초등학교〉

줄넘기와 음악의 행복한 만남

맑고 푸른 오월이 끝나갈 무렵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에 휩싸인 채 도덕 공부 시간이 되었다.

"어떤 마을에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놀이터를 만들 곳의 땅 주인인 영수 아버지께서는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우리는 놀이터가 필요 없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컴퓨터 게임하느라 놀이터 갈 시간이 없어요."

즉흥적이고 단순한 그래픽 문화에 길들어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영수 아버지께서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 한다느니, 아니면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니 팔지 않아도 된다느니' 이런 대답을 기대했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개인의 틀 속에 고정되어 자기만을 생각하고 밖에서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점점 멀리하며 좁은 공간에 산재한 멀티미디어라 불리우는 그래픽, 오디오 문화 속에 빠져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영양의 음식을 찾게 되어 체구는 점점 어른에 가까워지지만 체력은 훨씬 저하되어있다.

몇몇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극복의 길을 찾던 중에 줄넘기를 학생들과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마치 어디에 끌려나온 모습처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생각해보아도 그랬다. 거의 변화 없이 단순 반복하는 줄넘기를 학생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음악줄넘기였다. 음악줄넘기는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다양한 동작과 리듬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흥겨운 운동 중의 한 분야이다. 중간놀이 시간, 점심 시간, 체육 시간의 준비운동 시간, 줄 운동 관련 시간을 모두 음악줄넘기와 짝을 이루도록 계획을 짰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는 줄과 발의 움직임을 잘 조화시켜 리듬이 맞춰지는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초 지도를 하였다. 열흘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학생들을 보며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몸집이 큰 은철(가명)이는 얼굴이 상기되고 땀이 옷을 모두 젖게 만들어도 끝까지 잘 따라했다. 나에게는 제일 고마운 학생이었다.

빠르게 적응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작을 단계별로 가르쳐주고 조금 서툴게 연습하는 학생들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했더니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제일 힘들어했던 은철이는 틈만 나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번갈아 2박자 뛰기, 가위바위보 뛰기, 앞으로 흔들어 뛰기 등 다양한 스텝과 동작을 하며 즐거워했다. 그 주변에 모여든 다른 반 학생들은 저마다 신기한 모습으로 쳐다보았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개인별로 지도해주고 성취기록카드를 만들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기쁨을 갖게 해 주었다.

학예회를 하는 가을이 되자 은철이를 비롯한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학예회의 주인공으로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각자 준비한 다양한 동작으로 작품을 만들어 냈다. 두 줄이 돌아가는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는 학생들은 너무 대견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으로 내 마음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줄넘기와 음악의 행복한 만남' 속에 빠져드는 햇살 같은 우리 반 아이들을 키워낸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지금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줄넘기와 음악의 행복한 만남으로 몸도 마음도 강하게 키우며 해맑은 웃음을 지어내고 있다.

리빙 센스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팁①

◇유통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유통기간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2~3년, 개봉 상태에서는 6개월~1년 정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합성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천연 성분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개봉한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화학성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트렌드라 화장품 유통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국내 브랜드는 제조일자를, 외국 브랜드의 경우는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을 표기하고 있으니 화장품 케이스에 적절한 표시를 해두었다가 사용기간을 조절하는 것도 좋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6일(음 7월 26일 戊戌)

子 36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48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60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72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84년생 과거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28

丑 37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49년생 걱정을 버려라. 61년생 정도를 걸으면 절대로 큰 피해는 없으리라. 73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85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것부터 잘하라. 행운의 숫자 : 18, 40

寅 38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50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해야 대손이 줄어든다. 62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74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야 수하인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03, 43

卯 39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5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63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75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13, 23

辰 40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2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4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76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05, 26

巳 41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53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65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7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44

午 42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4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6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8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39

未 43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5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67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9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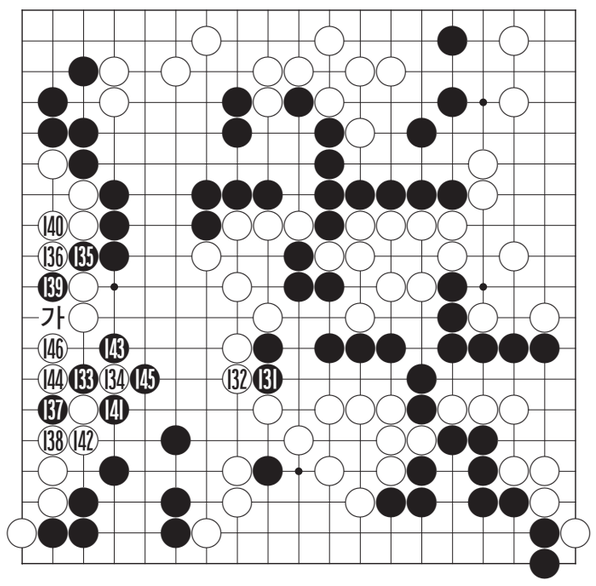
申 44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56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68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80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34, 35

酉 45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57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69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81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 24, 45

戌 46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8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70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82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6, 27

亥 47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독이 된다. 59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71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3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2, 4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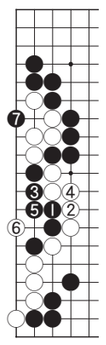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패착이 될 뻔한 덜컥 수

개인전 준결승 1국 8보(131~146)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이상의 5단 (광주시청)



〈참고도〉

형세 불리를 절감한 이상의 5단이 흑 133으로 붙여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 간다. 이때 박광주 5단은 '설마 이곳에서 수가 나겠느냐'는 생각인지 134로 젖히고 흑 137에는 백 138로 받는다. 이 수는 142로 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막고 보니 맛이 나빠졌다.

흑 139로 끊어왔을 때 140으로 이은 수가 덜컥 수로 이 바둑을 졌다면 패착이 될 뻔한 위험한 수였다. 이 수로는 위쪽 석 점을 버리고 '가'로 잡는 수가 정수다.

흑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는데 이상의 5단은 갑자기 141부터 145로 백 한점을 빵 때리고 만다. 물론 때려내고 싶은 유혹이 크긴 하나 실속이 별로 없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치받는 독수가 있었다. 그러면 백은 2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7까지 백 다섯 점이 잡히고 만다. 이랬으면 대역전극이 벌어질 뻔했다.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백 146으로 늘어서는 백의 승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도요타덴소배 8강

이세돌 9단이 25일 일본에서 열린 제4회 도요타덴소배 세계바둑왕좌전 16강에서 일본의 이마무라 토시야 9단을 상대로 243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날 함께 출전한 이창호 9단은 박문요 5단에게 졌고, 한상훈 3단도 류싱 8단에게 무릎을 꿇었다. 박영훈 9단도 구리 9단에게 248수 만에 불계패 했다. 일본의 장쉬 9단은 샤샤 3단을 289수 만에 23집 반승으로 거두고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대회 제한시간은 3시간에 10분전부터 초읽기를 시작한다. 초읽기는 60초 10회. 우승상금은 3천만엔(한화 약 2억5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32>

That makes it pretty easy.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지.

A : Can you put this load of clothes in for me?
B : Yeah. Where's the detergent?
A : There is some detergent already in the washer.
B : Oh, that makes it pretty easy.

A : 이 옷 보따리 좀 넣어줄래?
B : 그래, 세제는 어디 있지?
A : 이미 세탁기 안에 세제는 있어.
B : 아하,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지.

* a load of ~ : ~ 한 보따리
* detergent : 세제
* washer : 세탁기
* 컵 보관장에 메리 컵이 있어.
  = There is a cup for Mary in the cupboard.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32>

足(あし)が出(で)てしまいますよ.

예산이 초과해 버려요.

A : 上野(うえの)部長の送別会(そうべつかい), 明日するそうですよ.
B : 予算不足(よさんぶそく)で, 社内(しゃない)で簡単(かんたん)にすると聞(き)きましたけど.
A : じゃ, お寿司(すし)の出前(でまえ)をたのんで飲み物と果物(くだもの)程度(ていど)を 準備(じゅんび)すればいいですね.
B : あまり高いもの買(か)ったら足(あし)が出(で)てしまいますよ.

A : 우에노 부장님의 송별회, 내일 한다면서요.
B : 예산부족으로 사내에서 간단히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A : 자, 초밥을 시키고 마실 것과 과일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군요.
B : 너무 비싼 것 사면 예산이 초과해 버려요.

送別会(そうべつかい) : 송별회
出前(でまえ)をたのむ : 음식을 배달시키다
足(あし)が出(で)る : 지출이 예산을 오버했을 때 사용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09>

你身体好吗?

건강하시죠?

A: 老师, 您好!
Lǎoshī, nín hǎo!
B: 你好!
Nǐ hǎo!
A: 您身体好吗?
Nín shēntǐ hǎo ma?
B: 很好, 你呢?
Hěn hǎo, nǐ ne?

A: 선생님, 안녕하세요!
B: 안녕!
A: 건강하시죠?
B: 건강해요. 너?

老师 [Lǎoshī] 선생님
身体 [shēntǐ] 몸, 신체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49>

豹死留皮 (표사유피)

표범 표, 죽을 사, 머무를 류, 가죽 피

표사유피(豹死留皮)는 흔히 호사유피(虎死留皮)라고도 한다. 즉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인데, 이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인사류명(人死留名)이 이어진다.

이 말은 양(梁)나라가 멸망할 때 의로운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장수 왕언장(王彦章)이 즐겨 인용하던 이언(里諺)이다. 왕언장(王彦章)은 무식하여 병졸에서 시작하여 후량(後梁)의 태조(太祖)인 주전충(朱全忠)의 장군이 되었다.

그는 하나의 무게가 백 근이나 되는 한 쌍의 쇠창을 옆에 끼고 늘 주전충의 곁을 따라다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철창(王鐵槍)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주전충은 아들에게 피살되고, 그 아들은 다시 동생에게 피살되는 등 양나라에 내분이 일어나자, 진왕(晉王) 이존욱(李存勗 : 장종)은 황제가 되어 국호를 당(唐)이라 하고 양나라를 공격하였다. 이 때 왕언장은 마지막까지 겨우 5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수도를 지키다가 상처를 입고 포로가 되었다.

당제(唐帝)는 그의 무용을 아껴 자신의 부하가 되어 달라고 했으나, 왕언장은 "아침에 양(梁)나라, 저녁에 당(唐)나라를 섬긴다면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하면서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新五代史)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